푸른 대구 가꾸기사업 선도

김진호 한영종합건설(주) 사장

"환경은 곧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환경은 곧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조경 역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 공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경은 인간과 자연이 더욱 융화되도록 하는 촉매 작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의 중견 건설업체인 한영종합건설은 '푸른 대구 를 가꾸어 온 공로자이다. 1960년 조경업으로 출발한 이 회사는 이제 대구의 명물이 된 도심의 히말라야시더를 처음 가로수로 심어 울창하게 자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신천 공원화 사업, 수성 수변공원, 대구 월드컵 경기장 조경 공사 등 대구의 굵직한 조경 공사들을 수행하였다.

대구에 나무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이 결정적이었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모두 1,000만 그루의 나무를 도심 곳곳에 심는다는 계획으로 녹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00년에는 대구가 녹지 면적의 증가로 무더위 도시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같은 해 경남대 조사 결과에서도 대구시의 온도가 평균 1.2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의 온도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임을 감안하더라도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이 시작된 이래 대구시의 기온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김진호 사장은 "환경에 관한 한 대구는 악명 높은 도시였지만 민선 자치 시대 이후 녹지 공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면서 이곳이 환경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도시 조성에 한영종합건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구 월드컵 경기장 조경 공사가 인상에 남는다고 말했다. 커다란 어려움을 극복해냈기 때문이다. 2001년 5월 대구에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에만 100㎜ 넘는 비가 내렸다. 이러한 집중 호우로 인해 경기장 법면 조경지 전체가 흘러내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월드컵을 앞두고 벌어지는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는 '대형 사고'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김진호 사장은 직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궁리를 한 결과 법면에 대나무 방책을 꽂아 토압을 이겨내도록 처리함으로써 1주일 만에 문제를 해결하였다. "당시 집중 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린 모습을 보고 대구시장 등 관계자들 모두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회사로서도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반세기 가까이 조경 사업을 해오면서 축적한 역량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위기에서 발현된 것이지요."2001년 12월 이 회사는 대구시로부터 조경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김진호 사장은 가업을 이어받은 2세 경영인이다.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95년에 대표이사 사장이 되어 경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사장이 된 후 그는 먼저 협력업체 관리에 변화를 주었다.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는 대신에 협력업체를 등급별로 나누어 우수 업체에 기회를 더 줌으로써 시공의 질 향상을 꾀하였다. 회사의 관리직을 줄이는 부수 효과도 거두었다. 또한, 불요 부동산을 처분해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었다. 현재 이 회사는 신용 등급 AA를 유지하고 있다.

김진호 사장은 이러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조경과 건축이 결합된 사업을 해볼 생각이다. "자연에 함입될 수 있는 예술적이고 정성이 담긴 전원주택 같은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연을 생각하고 인간을 위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